

The 51st Subscription Performance of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부산시립무용단 제51회 정기공연

개
백

코
트

2004. 6. 4 (금)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개벽곡

부산시립무용단 제51회 정기공연

제작 STAFF

안무·구성 : 홍기태
훈련지도 : 이윤희
특별출연 : 김진홍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버숨새 예술단
대본·연출 : 황해순
풍물지도 : 최정민
무대미술 : 정연광
백철호
의상 : 이호준
소품 : 조남양
비디오 : 김상헌
사진 : 이승운
기획 : 박소윤
홍보 : 김장국
소품 : 안정숙
진행 : 이경현, 박상용
출연 : 부산시립무용단

무대 STAFF

무대기술감독: 권영준
조명감독: 곽동인
음향감독: 전인수
무대감독: 서종철

photo & design 장준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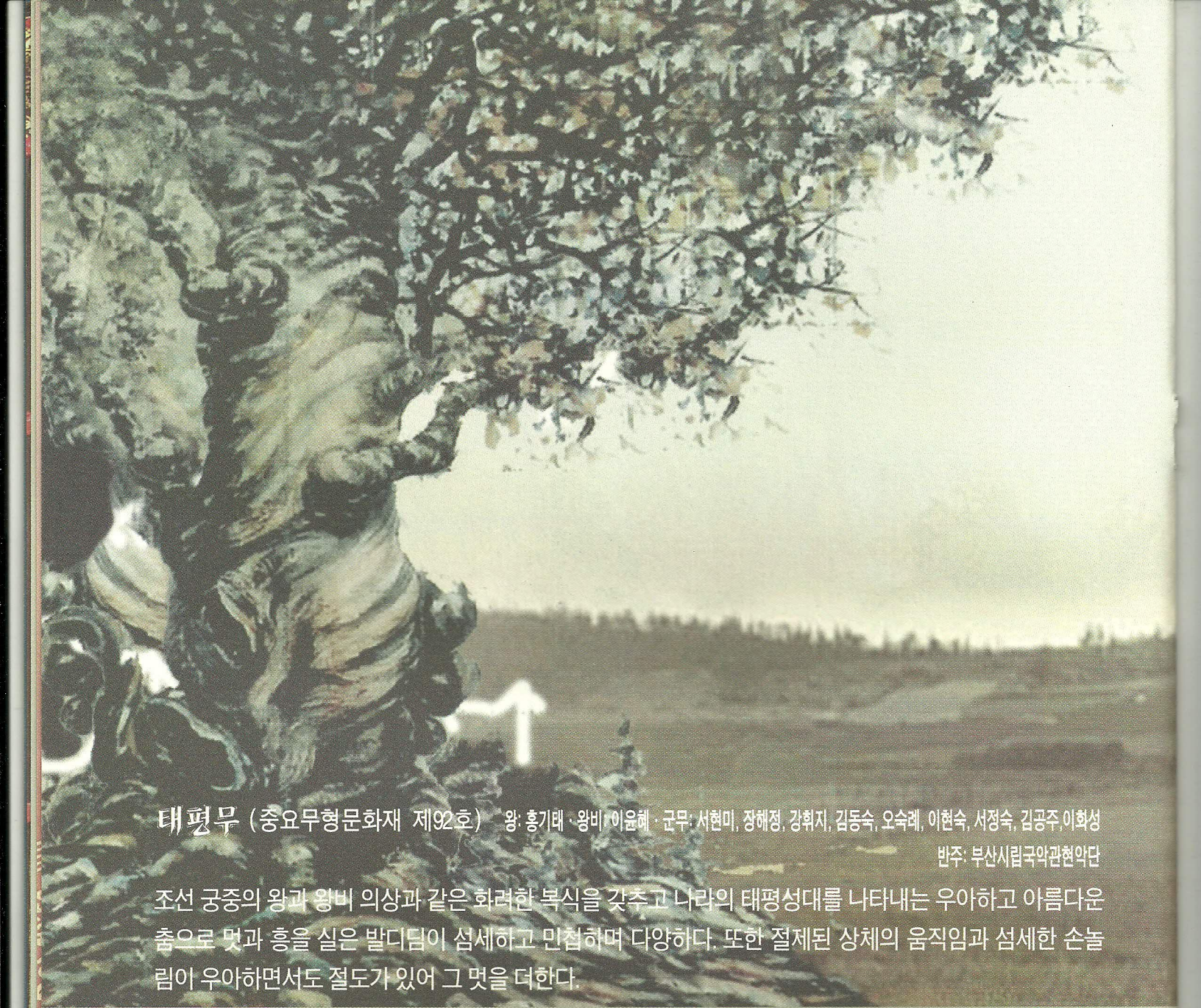
개 벽 굿

땅아, 하고 나직이 불러봅니다
그는 너무나 넓어 대답이 없습니다
땅에 엎드려 대지의 맥박소리
가만히 귀 기울여 봅니다
그는 깊디깊어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눈부시게 시린 하늘
막걸리 한 사발 짚욱 들이치고
썩썩 두발 모두어 콧 배저 뽐니다
디딘 발 사이 불끈 기운이 솟아 올라
어깨춤 들썩 신명을 펼칩니다

북소리 두응 등
백두산에서 북을 치면 한라산이 들썩해야
그래야 제대로 북을 쳤다고
천지개벽의 웅혼한 북소리
오만년 북은 넓고도 깊은 속내
비로소 푸르른 새싹을 틔우는도다
새로운 대동 세상 맞이하자고

땅이 곧 사람이요
사람이 바로 하늘입니다



태평무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왕: 홍기래·왕비: 이운혜 ·군무: 서현미, 장해정, 강휘지, 김동숙, 오숙례, 이현숙, 서정숙, 김공주, 이희성
반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조선 궁중의 왕과 왕비 의상과 같은 화려한 복식을 갖추고 나라의 태평성대를 나타내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춤으로 멋과 흥을 실은 발디딤이 섬세하고 민첩하며 다양하다. 또한 절제된 상체의 움직임과 섬세한 손놀림이 우아하면서도 절도가 있어 그 멋을 더한다.

배따라기

권봉정, 김현숙, 허경미, 정진희, 김주령, 이정인, 정은정, 이현주, 안주희

서도잡가(西道雜歌-평안도 민요)에 속하는 노래로, 이선가(離船歌), 이선(離船)이라고도 한다. 배따라기는 '배떠나기'가 와전된 말로, 박지원의 <한북행정록(漢北行程錄)>에 '우리 악부(樂府)에 배따라기곡이 있는 바, 방언으로 선리(船離)이다'라 하였다. 이 노래는 뱃사람들의 고달프고 덧없는 생활을 서사체로 엮고 있으며 후렴이 붙지 않는 장절형식이다. "댕 올리자 배 떠나니 이제 가면 언제오소 만경창파에 가시는 듯 돌아오소" 기다림의 애잔하면서도 슬픈 내용을 여인들의 춤으로 새롭게 창작하였다.

설장고춤

류준, 강미향, 황선희, 이지향, 이현정, 박창희, 오수연, 김주연, 김미란, 김진영, 윤은하
반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설'이란 '으뜸'이라는 뜻을 지닌 말로, 영남농악에서는 수장고(首長鼓)라고도 부른다. 대개 덩덕궁이·다드래기(호두락가락)·구정놀이·굿거리 등 여러 가락을 번주시켜 놀이를 짜는데, 이 작품은 영남 농악가락을 중심으로 신명하고 흥겨운 춤사위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동래한량무

특별출연: 김진홍

장래훈, 이성원, 이정식, 박성호, 김병주, 김기원, 강모세, 이창규, 허태성, 반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옛부터 동래지방에는 멋과 풍류를 세월에 안은 많은 분들이 있어
온 바, 이 분들의 투박한 춤사위와 동래 특유의 덧배기 사위들이
조화로운 형태로 변모되어 겸손, 절제, 정교함이 곁들여진
남성무용이다.

넋들임춤

왕무당: 서현미

군 무: 권봉정, 장해정, 김현숙, 허경미, 강희지, 오숙례, 서정숙, 정진희, 황선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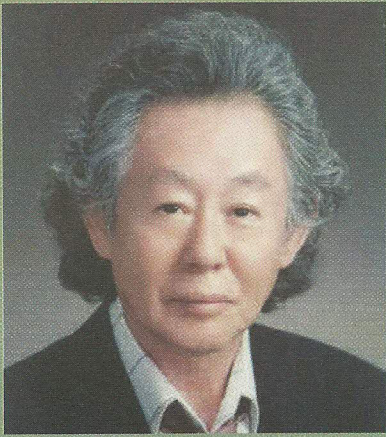
이지향, 이정인, 김공주, 정은정, 이희성, 박창희, 김경미, 이현주, 전해련, 안주희

넋이시여, 티를 닦아 정화하고 판씻음하는 꽃길로
넋이시여, 살아 생전 못다 한 억울한 삶의 사연을 풀어내
넋이시여, 하얀 꽃길 따라 씻김 하소서
넋이시여, 천도하여 해원 상생 하소서

백두대간

특별출연: 버슴새예술단 대북: 장래훈, 김주령 부산시립무용단 전단원

두웅둥 북소리 백두에서 우리나라와
강을 차고, 산을 때리고, 들판을 울리는
대지의 웅혼한 울림이어라
아, 큰 산 같은 사람
온 세상을 가슴에 안으려는 바다 같은 사람
땅을 쿵쿵 울리며 매운바람을 헤치며 세상을 걷는
그런 가슴 떨리는 흰 옷 입은 사람
마침내 백두대간의 청룡이 되고 백호가 되어
일상을 날아올라 심오한 정신의 숲과 대지를 울리고
마침내 우주를 진동시키는 장엄
오호라, 개벽의 신새벽 맞이하러 가자스라



김진홍

- 부산광역시 문화상 수상(1987)
-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
-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
-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역임
- 한국무용협회 이사 역임
- 부산 민속예술보존회 이사 역임
- 무형문화재 보고서 동래한량춤 무보집 발간
(국립문화재연구소, 1995)
-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출강
- 현 김진홍 전통춤 연구회 예술감독



개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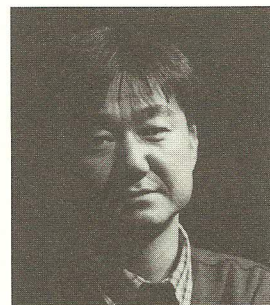
기획: 박 소 윤



소품: 안 정 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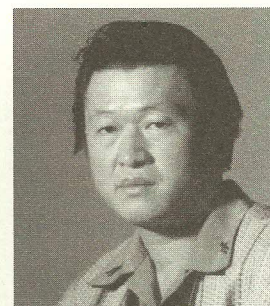
홍보: 김 장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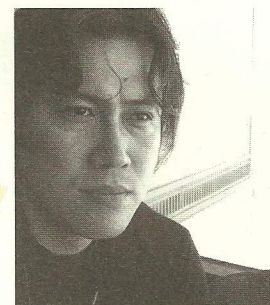
대본·연출: 황 해 순



무대미술: 정 연 광



의상: 이 호 준



무대미술: 백 철 호



특별연주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풍물지도: 최 정 민



특별출연 : 버숨새예술단

대	금	한영길	피	리	김경수
태	평	김용우	해	금	방병원
장	구	전학수	팽과리·죄고		최오성
	징	신문범	북		이주현
제	금	손강수	가야금		오은영

최정민, 김대원
장영호, 김도연
박현호, 김한동
박순호, 김영산
장영진, 최의옥